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0호 【루계 제24398호】 주체102(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국태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인 김국태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12월 15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의방문에는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김원홍동지, 김평해동지, 리재일동지,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인민무력부의 화환이 놓여있었다.

령구옆에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옆에 서있었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장내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김국태동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신 다음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이 위로해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김국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김국태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5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탄자니아위원회가 7일 다르 에스 살람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탄자니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서기장 마이나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7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동지회고 도미니까위원회가 9일 싼또 도밍고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미니까 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호쎄 미겔 메히아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을 맞으며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여러 나라에서 행사,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칠레, 브라질, 나이제리아에서 회고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 《주체사상탑》 등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두아르도 아르떼스는 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조선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치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아씰리누 리베이루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나이제리아 나이저주 민나시종합병원 원장 이브라힘 티. 콜러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의 자주권수호와 부강발전에 실로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지금 조선이 대국들의 그 어떤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고있는것은 국력이 강하기때문이다.

브라질에서 진행된 회고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다양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누르딘 뿌르노모가 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한평생은 인류자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바치신 걸출한 령도자의 고귀한 한생이다.

그이의 존함과 불멸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을 비롯한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간직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합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1월

←조선인민군 제2796군부대 민경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0(2001)년 8월

다박솔초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4(1995)년 1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9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4(2005)년 5월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7월

동해안 최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알섬방어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11월

공화국영웅 길영조비행사의 학습장들과 자작시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2월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를 시찰하시고 무기를 수여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6(1997)년 6월

조선인민군 제493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1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에 현대적인 4척의 고기배를 보내주시였으며 지난 5월 27일 이곳을 찾으시고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고기배들의 명칭을 가을의 상징인 《단풍》호로 달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날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하시며 4,000t의 물고기를 잡으면 지배인이 편지로 기쁜 소식을 꼭 알려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한몸이 그대로 그물이 되고 추진기가 되여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어로전투를 벌림으로써 6개월동안에 4,000여t의 물고기를 잡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배인에게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윤용일동무에게!

동무의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았소.

어로전투에서 대단한 성과를 쟁취한 동무네 수산사업소 종업원들에게 **김정은**이 인사를 보내오.

고맙소.

동무네가 명년에도 풍요한 가을과 같은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리라 믿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오.

김 정 은

2013. 12. 11》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친필을 보내주신데 이어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그들이 보고싶으시여 찬바람을 맞으시며 머나먼 이곳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마중나온 군부대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편지를 반갑게 보았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 고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지휘관들과 일군들은 30여년만에 펼쳐진 흐뭇한 물고기대풍을 두고 저저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병사사랑이 낳은 결실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덕분이라고 감격해한다는데 대해 격정에 겨워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잡은 물고기들을 보자고 하시며 물고기절임창고와 물고기랭동저장실에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절임창고에 그득한 물고기들을 보시고 넘쳐날것만 같다고, 포탄들이 가득 차있는 탄약창고같다고 하시였으며 랭동저장실마다 빼곡이 차있는 물고기들을 보시면서는 포탄상자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병기창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물고기들이 가득차있는것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군인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자고 하시며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이 흐뭇한 광경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군인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너무도 기쁘시여 눈물을 흘리시던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부대안의 그 어느 초소에 가보아도 물고기냄새가 풍기고 군인들의 몸에서 물고기비린내가 날 정도로 정상적으로 먹인다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군인들이 튼튼해질것이라고, 아마 힘들이 넘쳐날것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편지의 구절에 있는것처럼 부대군인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을뿐아니라 매일 먹는다고 좋아한다는데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시기 한해에 물고기를 1,000t밖에 잡지 못하던 사업소가 6개월동안에 4,000여t을 잡았으면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변이 나는 해에 보기 드문 물고기풍년, 물고기사태를 안아왔다고, 이것은 앞으로 더 큰 변혁을 예고해주는 희한한 풍경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최고사령관의 마음에 자기들의 심정을 합쳐 물고기대풍을 안아왔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최고사령관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곳 수산사업소에 오니 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온다고 하시면서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이라는 노래가사가 절로 떠오른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4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3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는것을 이곳 수산사업소의 경험이 실증해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군인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 어디서나 희한한 물고기풍년을 안아올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종업원들을 이끌고 당에서 준 명령을 결사관철한 지배인 윤용일동무를 영웅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였으며 사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관철한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가 충정의 보고를 올리고 최고사령관과 기념사진도 찍자고 하시며 그들을 평양에 초청해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사업소에서 오늘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하여 명년도에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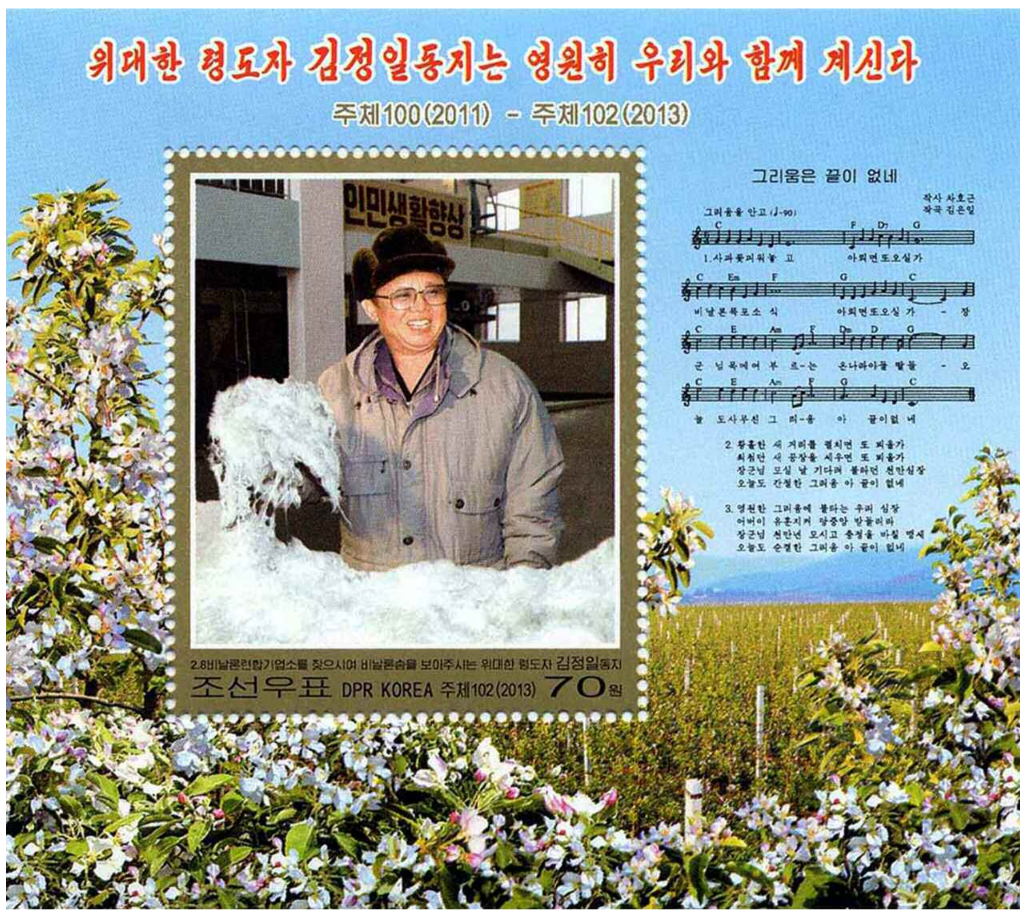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대로 《단풍》호들의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힘차게 울리며 사업소를 사회주의수호전의 믿음직한 병기창으로 전변시킬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우 표 발 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들(소형전지 2종)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들의 웃부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체100(2011)–주체102(2013)》이라는 글발이 씌여졌있다.

인민군군인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신 우표가 있는 소형전지는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전하고있다. 가요 《그리움은 끝이 없네》의 가사와 악보가 반영된 소형전지에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주체섬유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신 우표가 있다.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는 우표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고있다.

청년학생들의 회고무대 《그리움은 끝이 없네》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회고무대 《그리움은 끝이 없네》가 1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시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장내에 차넘치는 속에 회고무대는 녀성독창과 합창 《아 그리워》로 시작되였다.

회고록랑독과 남성중창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설화와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 녀성독창 《장군님 생각》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흠모심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을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전위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높이 칭송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실장 계성희의 발언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신일, 김신혁과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 전주옥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들은 인민의 행복을 최대의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청년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청춘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신데 대한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전하였다.

출연자들의 말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령도자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이야기와 노래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녀성2중창과 방창 《매혹과 흠모》는 애국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조국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구가하였다.

남성독창과 방창 《조국찬가》, 녀성2중창과 합창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등의 종목들을 보며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내 조국은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회고무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떨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온 나라 청년학생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시와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회고무대는 끝났다.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할 불같은 신념과 의지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 강산에 그리움이 넘쳐나는 12월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도와 시, 군소재지들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찾아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선군정치로 만난시련을 뚫고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세상이 보란듯이 우뚝 세워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이 아침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고 올해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를 아뢰인다. 위대한 장군님 유훈대로 한마음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할 불타는 맹세를 다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평안북도를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은 평안북도의 이르는 곳마다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법랑철기공장, 천지개벽을 자랑하는 창성군으로부터 농업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공장길, 농장길들마다에 새겨가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을 되새길수록 눈굽이 젖어든다.

주체비료 쏟아질 그날을 앞당기시기 위하여 동해의 대화학공업기지 흥남을 찾으시였던 그길로 서북단의 락원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대형산소분리기를 생산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시고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대계도간석지를 찾으시여서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신념을 간석지건설자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신 어버이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받아안고 대형산소분리기를 기어이 만들어내던 그 나날처럼 락원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 올해 자기들앞에 맡겨진 유압식굴착기와 대상설비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 불타는 결의를 다진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를 끝내고 홍건도간석지건설에 진입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자들이 올해 자기들앞에 맡겨진 간석지건설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성과를 장군님께 삼가 아뢰인다.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신의주법랑철기공장과 구성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 녕변견직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령도업적단위들의 근로자들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다시한번 비약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올해 다섯번째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신의주마이싱공장의 로동자들과 수풍의 전력생산자들, 신의주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한 성과를 안고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찾아 변함없이 대고조진군의 앞장에 설 불타는 결의를 다진다.

주체99(2010)년 11월 창성군을 또다시 찾으시고 지방공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창성군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다 한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강산에 차넘치는 이 아침 창성군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눈부시게 전변된 자기 군에 모시였던 감격의 그날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삼가 장군님께 아뢰인다.

—어버이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현대화된 지방공업공장들에 만부하의 동음이 높습니다.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창성사람들의 생활이 나날이 꽃펴나고있습니다.

창성사람들처럼 당이 펼쳐준 휘황한 래일을 안고 인민생활향상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온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규모남새온실을 번듯하게 건설한 자랑을 안고 수백t능력의 버섯공장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태양의 그 미소로 자기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을 뵙고싶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찾고찾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들속에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한 자랑을 안고 다음해에는 농사를 더 잘 지어 어버이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풀고야말 맹세가 넘쳐흐른다.

—어버이장군님, 저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오직 원수님의 령도만을 충직하게 받들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겠습니다.

이것이 12월의 언덕에서 다시금 굳게 다지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특파기자 송 창 윤

◇ 수 필 ◇
12월의 흰눈

12월의 첫눈이 내렸다.

그밤 만수대언덕으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었다. 그 물결에 휩싸여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나의 가슴에는 이름 못할 격정이 파도쳐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할것입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끝없이 새겨주는 12월의 눈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한 인민의 충정이 흰눈덮인 만수대언덕의 층계마다에 자욱자욱 찍혀지고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손에손에 눈가래와 비자루를 들고 주변관리사업에 진정을 바치는 그 무수한 사람들속에는 취재길에서 만났던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낯익은 로동자도 있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2월의 눈은 피눈물의 추억을 불러오군 합니다. 그래서 12월의 눈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며 언제나 우리 맘속에서 녹지 않는것 같습니다.》

녹지 않는 눈!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는 그의 진정의 목소리였다. 그러는 나의 가슴에 문득 안겨오는 혁명일화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12월 어느날 새벽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곳은 최전연에 위치한 인민군부대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어버이장군님을 모신 감격과 기쁨에 겨워 울고웃으며 장군님의 옷자락에 매여달리던 병사들은 뒤늦게야 그이께서 타고오신 승용차가 눈무지로 된 사연을 알게 되였다. 그때 우리 병사들의 심장속에서 어떤 격정이 터져나왔던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렇게 눈덮인 길을 달려오시면 우리 병사들은 어찌합니까. 더는 이런 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달리는 눈무지, 하기에 병사들은 오늘도 그날의 그 눈무지가 가슴속에서 녹지 않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고있는것이다.

가슴속에 녹지 않는 눈!

이것이 어찌 한 로동자나 병사들의 심정만이겠는가.

돌이켜보자, 2년전 12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던 그때의 일을.

장군님 가시면 안된다고 목메여 부르며 령구차를 한몸으로 막아서던 우리 인민이였다. 수도의 거리마다에 어버이를 부르는 인민의 곡성이 터져올랐다.

2월의 봄우뢰를 터치시며 흰눈덮인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눈보라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인민과 영결하는 시각까지 찬눈을 맞으시는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 두손으로 연도에 내리는 눈을 쓸었고 자기들이 입고있던 솜옷을 벗어 펼쳐놓으며 그이의 유훈을 결사관철할 피눈물의 맹세를 다진 인민이였다.

이제는 하늘가에 언뜻언뜻 날리는 눈송이만 보아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부터 앞서는 이 나라 인민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너무도 뜨겁게 이어진 12월의 흰눈, 그 흰눈을 보는 인민의 감정은 이렇듯 절절한것이다. 그래서 이해의 12월에 내리는 흰눈도 그리움의 송이송이로, 맹세의 피방울로 그토록 뜨겁게 안겨오는것 아니겠는가.

바로 12월의 흰눈을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며 대고조의 한해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줄달음쳐온 우리 인민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현대판종파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그렇다.

12월의 흰눈은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녹지 않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결정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만을 억세게 걸어갈 신념의 결정체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오 철 권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모임

중 국 에 서 진 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중국의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재중항일혁명투사가족들의 회고모임이 13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지재룡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모임에 함께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이어 우리 나라 영화 《백두의 서리꽃과 이깔단풍》을 감상하였다.

모임에서는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의 딸 장금록, 재중항일혁명투사 리재덕의 아들 우명 등이 발언하였다.

장금록은 탁월한 애국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고 영원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시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과 함께 영원히 그이를 그리워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의 계승과 승리적전진을 위한 정치적기초를 마련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빛나게 계승해나가고계신다.

영웅적조선인민은 최고령도자이신 그이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주체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부강발전과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우명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조선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전에는 한시도 쉴수 없고 순간도 걸음을 멈출수 없다는것이 그이의 위대한 뜻이고 굳은 결심이시였다.

오늘 그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나가시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당의 혈통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당의 령도를 공고히 하시고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후 2년간의 력사적변혁을 돌이켜보면서 그이이시야말로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다.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이 드놀지 않는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그이의 유훈대로 김정은동지를 받들어 사회주의건설의 길에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 길이 빛내이리라고 확신한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단상

굳 어 진 일 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습니다.》

얼마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정문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약속이나 한듯 백두산3대장군의 현지교시, 현지말씀판에로 향하고있었다.

그앞에서는 이미 많은 종업원들이 관리사업을 진행하고있었다. 그곳에서 우리와 만난 당위원회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침마다 백두산3대장군의 현지교시, 현지말씀판을 제일먼저 찾고서야 일터로 향하는것이 이제는 공장의 굳어진 일과로 되였습니다.》

굳어진 일과!

스스럼없이 하는 그의 이야기가 나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려주었다.

일과란 날마다 하기로 정해져있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일과는 사람마다 다를수 있고 또 계절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공장 종업원들의 아침일과는 이렇듯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것이다.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장을 찾고 또 찾으시여 공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은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공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데 대하여 하신 현지말씀은 그들모두의 심장의 박동으로 간직되여있다.

바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에 뿌리를 둔 일과이기에 공장의 아침은 언제나 뜨겁다.

모든 종업원들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불같은 충정을 안고 하루일을 시작하기에 공장의 모든 전투장들에서는 시간마다,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공장의 굳어진 일과,

바로 평범한 생활로 된 이 하나의 화폭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하며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충정의 열도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거울이다.

한 영 철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
만 경 대 방 문

오형진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추모대표단이 1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성지를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만경대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주체혁명위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강렬해진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도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맞이하였다.

재 중 동 포 대 표 단 들 도 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김연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조선족예술인, 로인협회대표단, 김택룡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동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맞이하였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해 외 연 고 자 가 족 일 행 들 도 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서거 2돐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일행,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일행, 해외연고자 손원태가족이 1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역에서 리석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부소장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일행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일행

해외연고자 손원태가족

민족대단결위업에 바쳐진 절세위인의 고귀한 생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날과 날이 흐르고있는 이 시각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민족대단결위업의 실현을 위해 그토록 헌신분투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그이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민족의 자애로운 스승이시였다.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고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신 그이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민족단합의 확고한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투쟁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고,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밝혀주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민족단결사상에 따라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쟁취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지금도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한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커다란 상실의 아픔으로 온 나라가 피눈물의 바다에 잠겨있던 주체83(1994)년 8월 어느날 8.15범민족대회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열망을 더욱 북돋아주시고 조국통일위업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전진할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국상을 당하게 되자 일군들은 이런 때 어떻게 범민족대회와 같은 행사를 벌려놓겠는가고 하면서 8.15범민족대회를 그만두는것이 도리로 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 8.15범민족대회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범민족대회인것만큼 수령님의 생전의 뜻인 전민족대단결의 사상을 받들어 우리 당의 령도밑에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색있게 크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리하여 민족의 어버이의 서거로 하여 끝없는 슬픔속에 잠겨있는 이 땅에서 범민족대회가 개최되게 되였고 그 충격적인 소식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 뒤흔들어놓았다.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다시금 절감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벌려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주체84(1995)년에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8.15를 계기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한자리에 모여앉아 대민족회의를 열고 조국해방 50돐을 공동으로 기념하며 조국통일의 방도를 협의확정할것을 제의하는 호소문을 무게있게 낼데 대한 가르치심도 주시고 통일행사가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대정치축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범민족대회에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여기에는 조국통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겨레가 관심하고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전민족적위업이라는 사상과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통해 전민족적인 대단결을 실현해나가시려는 그이의 웅심깊은 의도가 깃들어있었다.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로 확대발전하고 북과 남, 해외의 3자가 모인 가운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진행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애국의 결단을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고 협력하여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6.15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시고 민족대단결의 새 경지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력과 무한대한 포용력에 격찬을 금치 못하며 장군님을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민족주의자》, 《장군중의 으뜸장군》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사상과 정견, 계급과 계층,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립장이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와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한대오에서 손잡고 나아가시였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사상과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과감히 나서고 조국통일운동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자주와 단합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민족의 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삼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애국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민족대단결을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험적책동

남조선괴뢰들의 최신전쟁장비도입책동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호전광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스파이크》정밀유도미싸일 수백기를 들여다 실전배치한데 이어 수십억US$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여 미국과 도이췰란드, 프랑스 등에서 스텔스전투기, 대형다목적수송직승기, 정찰기, 각종 미싸일들을 비롯한 첨단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한편 이지스구축함을 3척에서 6척으로 늘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것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더욱 바싹 몰아가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망동으로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괴뢰들이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수단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하려 하는것은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흉악한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집권초기부터 《완벽한 군사적대비태세》와 《대북억제력》을 갖추고 그 누구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호전광들은 북침핵선제타격을 노린 모험적인 맞춤형억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킬체인》과 미싸일방어체계구축에 열을 올리고있다. 괴뢰들의 최신전쟁장비도입책동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강화되고있다. 이것은 호전광들의 범죄적인 핵선제공격기도를 뚜렷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F－15K》전투기에 탑재될 도이췰란드제 공대지미싸일 《타우루스》는 남조선상공에서 우리 공화국의 전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선제공격무기이다. 미국의 대형다목적수송직승기 《CH－47D》도 병력은 물론 무장장비들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괴뢰당국이 이러한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것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책동은 기필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군비경쟁과 무력충돌을 야기시키게 될것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 안정이 위협당하고 핵전쟁위험만 증대되고있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지금 북남관계는 극도의 대결상태에 처해있다. 대화와 협력이 사라지고 불신과 대결이 나날이 커가고있는 북남관계에서 이제 남은것이란 물리적충돌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괴뢰들이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외세와 결탁하여 도발적인 무력증강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이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와 함께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불을 지를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 단단히 틀어쥐고 북침전쟁도발과 대아시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는 한편 전쟁장비들을 더 많이 팔아먹어 제 리속을 채우자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한 괴뢰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뿌려 상전의 배를 불리워주면서 온 민족, 온 강토를 핵전쟁위협속에 빠뜨리는 반민족적범죄행위를 저지르고있다. 반인민적인 악정과 《유신》독재의 부활, 동족대결책동으로 민심의 버림을 받고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진 남조선의 반역통치배들은 그 출로를 북침전쟁도발에서 찾으면서 최신전쟁장비도입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의 막강한 군사적위력에 질겁한 남조선괴뢰들이 모험적인 무력증강책동으로 저들의 렬세를 만회해보려고 피하고있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그 어떤 최신전쟁장비도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타격앞에서는 파고철더미에 불과할뿐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군사적도발이 저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그것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심 철 영

반공화국적대의식에 환장한자들의 망동

얼마전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정식 발족되고 그 첫 회의가 진행되였다. 수상 아베와 외상, 방위상, 내각관방장관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정세가 집중적으로 론의되였다. 그 리유에 대해 그들은 우리 나라 정세가 복잡하고 그 누가 자기 나라를 《위협》하기때문이라는 설명을 달고있다. 요컨대 우리 나라때문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로부터 국가안전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외곡날조하여 여론을 딴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드팀없이 나아가고있다. 우리 나라의 정세를 놓고 어쩌구저쩌구하며 입방아를 찧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자들만이 할수 있는짓이다.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쟁억제력은 철저히 자위와 평화보장을 위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라면 그에 대해 하등의 위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에 대한 황당한 여론을 내돌리며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데서 우리 나라의 정세를 론의한것은 정치적무지에서 나온것이라기보다는 고의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반동들이 노리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위협설》을 기정사실화하여 반공화국책동을 합리화하고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자는것이다.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재침의 길에 나서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정책적목표이며 전략이다. 그들은 이것을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하려 하고있다. 조선을 먹어야 과거에 그러하였던것처럼 그를 발판으로 대륙에로 진출할수 있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화해와 협력, 관계발전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지난 시기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추어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것이 매개 나라의 안전과 공동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옳은 선택으로 되기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있다. 일본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매여달려 조일관계를 극도의 적대관계, 대결에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보장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것은 인류가 바라는것이 아니다. 인류는 일본이 범죄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조일 두 나라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세계평화보장에 이바지할것을 기대하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과거범죄를 미화분식하고있다. 피비린 과거침략사를 《정의의 위업》으로 정당화하고 전범자들을 《애국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가 《합법적》이였다는 망발까지 줴쳐대고있다.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의 신봉자로 만들어 아시아재침의 돌격대로 내몰자는것이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현대적인 공격 및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있고 그 어떤 적들의 침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무적강군이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재침의 포성을 울린다면 그것은 곧 일본을 영원한 파멸에로 몰아넣는 장송곡으로 될것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리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있다면 이것을 명심하고 앞을 내다보며 행동하여야 한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승산이 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범죄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조일관계개선의 길로 나오는것이다.

과거청산은 조일관계개선의 근본열쇠이며 여기에 일본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실지로 자국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과거범죄력사를 미화분식하며 부정하는 놀음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군사대국화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대담하게 포기하고 과거범죄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청산하여야 한다.

리 학 남

더이상 회피할수 없는 특검요구

괴뢰집권세력의 지난해의 특대형관권부정선거행위, 그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한 각계는 이제는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밖에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리고있다. 이런 가운데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립증하는 사건들이 련이어 폭로되고있다. 전 검찰총장 채동욱을 몰아내기 위한 청와대의 모략책동과 무려 2 200여만건에 달하는 선거개입글들을 인터네트에 올린 정보원패거리들의 망동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지난 9월에 있은 전 검찰총장 채동욱의 사퇴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을 방해하기 위한 집권세력의 음모책동의 산물이다. 채동욱을 검찰총장자리에서 떼버리기 위한 청와대의 그 비렬한 공작내막이 이번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채동욱이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창 지휘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가 갑자기 그에게 사생아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괴뢰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미전부터 부당한 압력에 시달려온 채동욱은 사태를 직감하고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퇴서를 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여론은 채동욱의 사퇴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합작품이라고 평하였는데 그것이 이번에 확증되였다.

폭로된데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수사조의 활동이 활발해지던 지난 6월 11일부터 채동욱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비법적으로 열람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결국 《조선일보》에 실린 채동욱의 사생아에 대한 보도자료의 출처는 청와대인것이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가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저들에게 고분고분하는 검사들에게 《총장이 곧 그만둘것이니 동요하지 말라.》고 암시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흥미있는것은 청와대 행정관의 직속상관이 현 집권자의 측근인 총무비서관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채동욱의 사퇴사건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의 사생활문제를 캐고 흠집을 들추어내여 망신시킴으로써 그가 자기 직무를 더는 수행할수 없게 하려는 집권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채동욱사퇴사건이 정보원대선개입사건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청와대의 계획적인 《찍어내기》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행정관을 해임시키고 그의 《개인적행위》라고 변명하는 청와대의 추태를 두고 남조선 각계는 파문이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라고 비난하면서 특검도입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한편 지난해 《대통령》선거당시 정보원패거리들이 인터네트에 올린 선거개입관련글이 무려 2 200여만건에 달한다는 사실도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지난 12월 5일 괴뢰검찰은 이미전에 발표한 정보원의 선거개입관련글 121만여건은 실제의 5%도 안되는것이며 추가로 확인된 글은 2 200여만건에 달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검찰측은 이미 지난 10월 14일 정보원이 리용한 인터네트싸이트가 383개에 달한다는것을 확인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사를 심화시켰는데 선거개입관련글은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수사력량의 부족으로 그것들을 단번에 조사할수 없는 조건에서 범위를 줄여 먼저 5만 5 000여건의 글을 분석하였다. 그후 조사가 계속되는 과정에 정보원이 리용한 인터네트싸이트가 2 270개나 추가되였다. 이것들을 리용하여 정보원패거리들은 여당후보를 지지하고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대량적으로 전파시키였다. 이렇게 류포된 선거개입관련글이 2 200여만건에 달한다는것이다. 검찰은 정보원이 리용한 인터네트싸이트가 이전에 확인된 383개까지 합치면 2 653개에 달하며 매 직원들이 수십, 수백개의 인터네트싸이트를 담당하여 선거개입관련글들을 무더기로 올렸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정보원의 선거개입관련글 5만 5 000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이 확증되였다. 이것은 남조선 각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속에 야당의 주장에 등을 돌리던 사람들도 너무 놀라 검찰의 발표를 믿어야 하는가, 《대통령》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가 하면서 당황해하고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지금 야당세력들은 채동욱사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였다는것이 드러나고 정보원이 류포시킨 선거개입관련글이 무려 2 200여만건에 달하는 조건에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 지난 6일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새로운 수사결과발표로 집권세력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특검도입을 위한 시기와 범위를 협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현 집권자와 《새누리당》은 결코 특검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현재 민주당은 특검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국회》에서 그것을 발의할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특검도입을 실현하려는 야당들과 남조선 각계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현 집권자가 당장 사퇴할데 대한 각계의 요구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들까지 련이어 밝혀지자 괴뢰보수패당은 극도의 궁지에 몰려 허우적거리고있다. 특검이 실시될 경우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 현 보수《정권》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로부터 그들이 현재는 야당과 각계의 특검도입요구를 한사코 거부하고있지만 남조선민심은 그것을 용납치 않고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사상 류례없는 관권부정행위를 저지른 괴뢰보수패당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

오늘의 세계

변함없는 대일강경립장

중국이 대일강경립장을 계속 견지해나가고있다.

여러 계기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립장을 내외에 널리 보도하고있다.

지난 1일은 《까히라선언》이 발표된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지난 2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력사를 거울로 삼아야만 미래를 개척할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침략력사를 바로 보고 심각히 반성하며 공약을 지키고 자기의 응당한 국제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실지행동으로 아시아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을것을 다시금 요구하였다.

또한 그는 지난 4일 정기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아시아 이웃나라들의 우려를 중시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여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에도 중국은 이러한 공식립장선에서 일본을 때리는 론조의 여러 글들을 게재하였으며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력사부정행위와 군국주의부활책동이 도수를 넘어서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올해초부터 일본군국주의재생을 제창하며 《기미가요》를 부르짖던 현 수상 아베가 어제는 《침략정의미정론》을 떠벌이며 저들의 과거침략력사를 정당화하더니 오늘은 부수상이라는자가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는 문제를 놓고 《나치스를 모방하여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고까지 떠들어대고있다.

문제는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는데 있다.

우에서 언급된 《까히라선언》리행문제만 놓고봐도 그렇다.

1943년에 채택된 이 선언에 따라 일본은 과거 일제가 중국으로부터 떼낸 모든 령토를 중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한두번만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까히라선언》을 무시하면서 해외팽창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오끼나와현의 이시가끼섬에 간 아베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올라 조어도가 일본의 고유한 령토이며 그것을 양보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의 령토, 령해, 령공 및 주권에 대한 도발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중국의 공무용선박들이 주변해역에 빈번히 접근하거나 배회하므로 경비환경은 날로 준엄하다고 지껄여댔다. 아베는 이날 미야꼬섬의 항공《자위대》기지에도 돌아쳤다.

전문가들은 이시가끼섬을 방문한 아베의 이번 행각은 조어도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분석하고있다.

일본은 중국과 예민한 령토분쟁문제를 안고있는 주변나라들을 반중국책동에 써먹으려 하고있다. 지어는 미국 등 동맹국이라 일컫는 나라들까지 끌어들여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령토문제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력사를 외곡하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올해 7.7사변 76돐을 계기로 그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1937년 7월 7일은 일제침략자들이 전중국을 강점하기 위하여 로구교사건을 일으킨 날이다. 바로 이날에 아베가 매개 나라는 자기의 력사에 대해 《긍지감》을 가지고있으므로 호상 존중하는것이 중요하다느니 뭐니 하며 《력사에 대한 긍지론》과 《실력론》을 운운해나섰다.

최근에 일본이 《중국위협론》에 대해 빈번히 떠들고있는것도 중국의 대일강경립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은 급속히 발전하고 현대화되여가고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

며칠전에는 중국의 정상적인 해상 및 공중활동을 무리하게 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비난전을 벌렸다. 아베가 창설한 전문가회의라는데서 이에 대해 론의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이미 일본정부가 작성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새 《방위계획대강》개요가 심의채택되였으며 부단히 확대되고있는 중국의 해상 및 공중활동에 랭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서남쪽에 군사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위협설》을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저들의 군국화, 령토팽창책동을 합법화,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단죄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령토 및 해양분쟁을 해결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자국정부의 노력에 저촉되는것으로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일본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는 한 중국의 대일립장은 더욱 강경해질것이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착잡하게 뒤엉킨 우크라이나의 정국

최근 우크라이나의 정국이 여느때없이 복잡해지고있다.

대내적으로는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여러 정치세력사이의 대립과 모순이 더욱 표면화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로씨야 및 유럽동맹과의 착잡한 관계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이 나라의 여러곳들에서는 반정부시위가 여러날째 계속되고있다.

지난 11월 21일 우크라이나정부가 유럽동맹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련합협정에 대한 조인준비를 중지한다고 밝힌데 이어 29일 이 협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한것이 주요계기로 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 다음날인 30일 새벽부터 우크라이나에서는 반정부시위가 벌어졌다. 반정부시위대렬은 수도중심부를 장악하고 거기에 천막들을 설치하였다. 일부 거리와 골목들이 봉쇄되여 수도의 교통이 마비되였다.

야당지도자의 한사람인 위딸리 클리츠꼬는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시위참가자들을 총파업에로 부추겼다.

우크라이나당국이 항의행동중지를 요구하자 야당은 그 요구조건으로 조기대통령 및 국회선거를 내걸고있다.

현재 수십만명의 반정부시위자들은 끼예브에 있는 시청사주변에 진을 치고앉아 반정부구호들을 웨치면서 전면적인 정부퇴진을 요구하고있다.

야누꼬비치대통령과 아자로브수상은 정부퇴진요구로까지 번져지고있는 반정부시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야당과의 대화를 추진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우크라이나의 정국을 바로잡을수 있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한다는것이 외신들의 견해이다.

십분 그럴만 하다.

오래전부터 유럽동맹가입문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유럽동맹사이에는 지역적 및 정치적, 경제적리해관계로부터 미묘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있다.

이전 쏘련시기 가맹공화국이였던 우크라이나는 로씨야 다음으로 령토가 큰 나라로서 동부는 로씨야, 서부는 유럽동맹 나라들과 린접해있다.

이러한 지역적요인으로부터 우크라이나는 유럽동맹뿐아니라 로씨야와 우호관계, 동반자관계를 맺는것을 필요로 하고있다.

로씨야나 유럽동맹도 우크라이나에 서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있다. 지역일체화를 지향하고있는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저들의 관세동맹에 인입시키려 하고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의 자금과 기술원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로부터 우크라이나정부는 량쪽에 동시에 가입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이 로씨야－우크라이나－유럽동맹, 로씨야－유럽동맹사이의 끊임없는 마찰로 번져지고있다.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사이의 무역마찰이 올해 들어와서만도 몇차례나 있었다. 좋게 매듭지어가던 두 나라사이의 가스분쟁도 또다시 터질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석가들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있는것이 쌍무관계에서 하나의 옭매듭으로 되였다고 전하였다.

우크라이나 이전 수상이였던 찌모쉔꼬에 대한 유죄판결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유럽동맹사이의 의견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친미, 친서방정책으로 나아가던 찌모쉔꼬가 이 나라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7년간의 징역형을 받은데 대하여 서방세력은 한사코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면서 감형시킬것을 강요하고있다. 우크라이나의 야당세력이 이에 적극 편승하고있다. 한 정세전문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반정부시위를 유럽동맹가입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앞으로 있게 될 국회선거를 겨냥한 서방의 간섭과 야당세력의 정치적소요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있다.

그런 가운데 로씨야와 유럽동맹은 서로가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지 말것을 권고하고있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사태가 보다 더 장기화되는 경우 이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파산될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이에 대해 미국이 참견질을 하며 돌아치는것이다.

미백악관 대변인 제이 카니는 항의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느니, 우크라이나당국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느니 하며 터무니없는 궤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현 사태가 장기화되고있는것은 미국때문이다. 그 뿌리를 파헤쳐보면 알수 있는것처럼 지난 시기 미국의 부추김밑에 일어난 《색갈혁명》으로 세력다툼의 권력구조가 형성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내부문제에 끼여들며 이렇소저렇소 하고있는 미국의 처사야말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착잡하게 뒤엉킨 정치적혼란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은 우크라이나인민에게 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ㄱ－31196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